

2016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국 어

수험 번호 : () 성 명 : ()

제1차 시험	3 교시 전공 B	8문항 40점	시험 시간 90분
--------	-----------	---------	-----------

- 문제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 모든 문항에는 배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1. 김 교사는 “글에 나타난 표현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를 학습 목표로 (가) 제재에 대한 (나) 학습 활동지를 제작하였다. 김 교사의 학습 활동 구성 방식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십시오. [4점]

(가)

보존된 유산과 사라진 유산

○○○

-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든 과거를 토대로 하여 살아간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오늘에 영향을 미치는 지난 시대의 유·무형의 모든 삶의 흔적이 곧 ‘유산’이다. 그 가운데서도 ‘문화유산’이란 후대에 계승될 만한 가치를 지닌 전대의 문화적 소산을 가리킨다.
- 1968년 이집트, 람세스 2세의 거대 신전 아부심벨이 다시 그 위용을 드러냈다. 댐 건설로 수몰 위기에 처한 아부심벨 구출 작전은 실로 거대한 과업이었다. 세계 50여 개국이 지원하고 1천여 명의 기술자들이 5년여의 싸움 끝에 완공한 이 과업에는 총 4천만 달러가 소요되었다. 그 규모와 아름다움으로 최고의 성적으로 꼽히는 아부심벨을 구하기 위한 유네스코의 청원 운동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 1995년 8월 15일 광복 50주년 서울. 국립 중앙 박물관 건물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식민지 시대 일본이 경복궁 앞에 지어 이용하던 조선 총독부 건물이었다. 광복 후 주한 미군의 군정청으로, 정부 수립 후 행정 관청으로, 국립 중앙 박물관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건물은 민족의 이름으로 폭파, 철거되었다. 식민지 시대를 거쳐 분단의 역사를 아프게 목도해 온 중앙청. 현대 한국의 신산한 삶이 몸소 증언하였던 이 유산은 국립 중앙 박물관으로 10여 년을 더 버티다가 결국 우리의 기억 속으로 영영 묻히고 말았다.
- 결국 아부심벨은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이었고, 중앙청은 지워야 할 치욕의 유산이었던 것이다. 아부심벨이 있던 수몰 지역에는 200여 고대 문명의 유적지가 산재해 있었고, 그 가운데 구출된 것은 몇 안 되는 스타 유물들이었다. 아부심벨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구해야 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유산이 되었다. 반면에 중앙청은 식민지 시대의 치욕적 증거라는 상징성 때문에 지워진 유산이 되었다. 식민지 과거의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철거가 이루어졌으나 이는 초라한 과거와의 대면을 회피하고 망각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는가.

(나)

학습 활동

1. 이 글의 전체 내용을 파악해 보자.

- 이 글의 주요 내용을 말해 보자.
- 다음을 중심으로 각 문단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①	‘유산’과 ‘문화유산’의 차이는?
②	‘거대한 과업’이 뜻하는 것은?
③	‘현대 한국의 신산한 삶’이 뜻하는 것은?
④	‘어떤 대가’가 뜻하는 것은?

2. 글에 나타난 표현의 의도를 중심으로 다음 활동을 해 보자.

2-1. 이 글에 쓰인 표현의 의도를 생각해 보자.

- 다음 표현이 사용된 이유를 대상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자.

표현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용 • 스타 유물들 •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아부심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소 • 버티다가 • 초라한 	국립 중앙 박물관

- 글쓴이가 각각의 대상에 대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의도를 생각해 보자.

2-2. 이 글에 사용된 표현이 글쓴이의 의도를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었는지 판단해 보자.

- ②, ④에서 아부심벨에 대해 사용된 표현이 효과적이었는지 생각해 보자.
- ③, ④에서 국립 중앙 박물관에 대해 사용된 표현이 효과적이었는지 생각해 보자.

<작성 방법>

- (나)에서 활동 2와 구별되는 활동 1의 학습 활동으로서의 성격을 쓰고, 활동 1이 필요한 이유를 서술할 것.
- (나)의 활동 2-1에서 활동 2-2로 가는 구성 방식을 독해 수준과 관련지어 설명할 것. 단,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 포괄적인 것에서 상세한 것 등 교과 일반적인 구성 원리는 제외할 것.

2. 다음은 “규칙에 맞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에 따라 학생들이 진행한 회의의 의안 심의 과정이다. 의장의 잘못 2가지를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의 장: ‘체험 여행을 남원으로 가자.’라는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는 이 의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총 무: 이번 6월 15일 여행의 체험 주제는 ‘고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임원 회의에서는 여행지로 몇 곳을 검토한 끝에 「춘향전」의 배경인 남원을 선정하여, 이 의안을 학급 회의에 제출했습니다. 남원에서 12일부터 20일까지 ‘춘향제’가 열려 「춘향전」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의 장: 이제부터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들을 질문해 주세요.

회원 1: (발언권을 얻어) 임원 회의에서 어디 어디를 검토해 보았습니까?

총 무: 남원을 비롯해서 안동, 강릉, 그리고 몇 곳을 검토했습니다.

회원 2: (발언권을 얻어) 남원에서 「춘향전」 체험 말고 다른 것은 없을까요?

총 무: 남원은 추어탕이 유명해서 지역 음식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회원 3: (발언권을 얻어) 저는 남원에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작년에 전주에 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다른 지역으로 가면 좋겠어요.

의 장: 미안하지만, 지금은 질의응답 시간이니 그 내용은 다음 단계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여러분, 궁금한 점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 4: (발언권을 얻어) 저는 남원을 좋아하지만 추어탕은 싫습니다. 다른 음식을 먹고 싶어요. 다른 음식 체험이 가능합니까?

의 장: 단체가 하는 체험이니까 개인적인 질문은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음..., 궁금한 것이 더 없는 것 같네요. 질의응답을 종결해도 좋습니까?

회원들: 좋습니다.

의 장: 그럼, 이제부터 이 의안을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총무는 의사 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총 무: 현재 27명 모두가 참석해 있으므로 의사 정족수가 충족되었습니다.

의 장: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이 의안에 찬성하는 분은 손을 들어 주세요. 13명입니다. 이제 반대하는 분 손을 들어 주세요. 11명입니다. 그럼, 기권이 3명이네요. 그래서 ‘체험 여행을 남원으로 가자.’라는 안은 찬성 13표, 반대 11표, 기권 3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성 방법>—

- 의장이 의안 심의 과정에서 누락한 단계 1가지를 쓸 것.
- 의장이 질의응답을 진행하면서 잘못된 점 1가지를 이유와 함께 서술할 것.

3. (가)는 김 교사가 작성한 교단 일기이고, (나)는 유 교사, (다)는 최 교사가 사용했던 쓰기 평가 도구이다. 세 교사가 선택한 쓰기 평가 방법에 대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김 교사의 교단 일기

지난 2주 동안 “쟁점이 있는 문제에 대해 설득적인 글을 쓸 수 있다.”라는 목표로 수업을 했는데,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해서 기분이 참 좋았어.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했지만 여전히 숙달하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어. 그래, 이번 쓰기 평가에서는 학생들이 지도 내용 중에서 무엇을 숙달했고 무엇을 더 연습해야 하는지를 확인해 봐야겠다. 평가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수업에 반영해야겠어.

이번 평가에서는 유 선생님을 따라해 보는 것은 어떨까? 써 보라고 평가 도구를 주기도 했고, 사실 편리하기도 한데……. 아니야, 그래도 ㉠이 도구를 활용한 유 선생님의 평가 방법은 쓰기 능력 평가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좀 있겠지만 학생들에게 ㉡ 직접 쓰게 하고 그 글을 평가하는 것이 좋을 듯해. 나 혼자 평가해야 해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서두르자. 마침 최 선생님께서도 먼저 쓰셨던 평가 도구를 활용해 보라고 주셨잖아. 그럼, 이제 한번 사용해 보자.

(나) 유 교사의 평가 도구

※ [1~20] 다음 물음에 가장 적절한 답을 고르시오.

1. 주장의 설득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로 적절한 것은?

① 합리적 근거 …… ⑤ 필자의 취미

… (중략) …

20. ‘전문가의 견해’는 어떤 근거 유형에 속하는가?

① 사실 논거 …… ⑤ 의견 논거

(다) 최 교사의 평가 도구

- 쓰기 과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여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 채점 기준표

등급	특성
우수	• 글의 내용, 조직, 표현이 전반적으로 우수하여 설득력이 높음.
보통	• 글의 내용, 조직, 표현이 다소 부족하여 설득력이 보통임.
부족	• 글의 내용, 조직, 표현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여 설득력이 낮음.

—<작성 방법>—

- ㉡에 비추어 볼 때 쓰기 능력 평가로서 ㉠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서술할 것.
- (다)를 단서로 하여 최 교사가 학생 글을 평가하기 위해 선택한 평가 방법이 무엇인지 쓸 것.
- 최 교사의 학생 글 평가 방법이 어떤 점에서 김 교사에게 적절하지 않은지를 (가)에 나타난 김 교사의 평가 의도를 바탕으로 하여 서술할 것.

4. 다음을 읽고 인물의 말과 행위가 갖는 의미를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이전 줄거리] 양반가 자제인 심생은 거리에서 본 여자를 뒤따라가 그녀의 집을 확인하고 여러 날을 방 밖에서 기다린다. 중인의 딸인 여자는 마침내 심생을 부모에게 소개하고 그와 인연을 맺는다.

심생의 집에서는 심생이 밖에서 자고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의심하게 되었다. 마침내 심생은 산속 절에 가서 공부에 전념하라는 분부를 받았다. 심생은 불만스런 마음에 우울하게 집에 머물다가 벗들에게 이끌려 책을 싸 짊어 메고 북한산성으로 올라갔다.

선방에 머문 지 한 달이 가까워 올 즈음, 어떤 이가 찾아와 그녀가 쓴 한글 편지를 전했다. 뜯어보니 이별을 알리는 유서였다. 그녀는 이미 죽었던 것이다. 그 편지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봄추위가 아직 매서운데 절에서 하시는 공부는 잘되시지요? 늘 그리워하며 잊을 날이 없답니다. 낭군이 가신 뒤 우연히 병이 생겼어요. 병이 차츰 골수에까지 미쳐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으니, 이제 곧 죽게 될 듯합니다. 저처럼 운명이 기박한 사람이 살아 봐야 무엇 하겠어요? 다만 세 가지 큰 한이 마음 속에 구구하게 남아 있어 죽어도 눈을 못 감겠군요.

… (중략) …

만난 지 얼마 안 되어 급작스레 이별하고 병들어 누워 죽음이 가까워 오건만 낭군의 얼굴을 보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수도 없군요. 이런 아녀자의 슬픔이야 무슨 말할 만한 가치가 있겠어요?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니 애간장이 끊어지고 뼈가 녹으려 해요. 연약한 풀은 바람 따라 흔들리고 시든 꽃은 흩어진다지만, 아득히 깊은 이 한은 어느 날에야 그칠까요?

[A] “아아! 창을 사이에 두고 만나던 것도 이로써 끝입니다. 낭군께서는 천한 저 때문에 마음 쓰지 마시고 더욱 학업에 정진하시어 하루빨리 벼슬길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부디 안녕히 계세요. 부디 안녕히 계세요.”

편지를 본 심생은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러나 소리 내어 통곡해 본들 이미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 뒤 심생은 ㉠ 붓을 던지고 무과에 나아가 벼슬이 금오랑에 이르렀으나 그 또한 일찍 죽고 말았다.

매화외사(梅花外史)*는 말한다.

내가 열두 살 무렵 시골 서당에서 공부하던 시절에는 날마다 동무들과 옛날이야기 듣기를 좋아했다. 하루는 선생님께서 심생의 일을 매우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심생은 내 어린 시절의 동창생이다. 이 사람이 절에서 편지를 읽고 통곡할 때 내가 곁에서 지켜보았더랬다. 급기야 심생이 겪은 일을 듣게 되었고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다.

[B] “너희들더러 이 풍류스런 사내를 닮으라고 이 이야기를 해 준 게 아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든 반드시 이루겠다는 뜻이 있다면 규방 여인의 마음도 얻을 수 있거늘, 하물며 글을 짓고 과거에 합격하는 일이 그보다 어렵겠느냐?”

우리는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이야기라 여겼는데, 훗날 『정사(情史)』*라는 책을 읽어 보니 이와 비슷한 것이 적혀 있었다. 이에 ㉡ 심생의 일을 적어 『정사』의 보유(補遺)*로 삼는다.

- 이옥, 「심생전」

* 매화외사: 작자인 이옥의 호.

* 『정사』: 명나라 때의 문인 풍몽룡이 남녀 애정과 관련된 중국 역대의 이야기를 모아 엮은 책.

* 보유: 빠진 내용을 보충한다는 뜻. 『정사』의 몇몇 권 뒤에 ‘보유’ 항목을 두고 추가 작품을 수록하였기에 한 말임.

<보기>

「심생전」에서는 개인의 욕망과 사회적 관습(가치)이 충돌하는 사안을 두고 인물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 후기의 세태 변화와 연관된다. 작자 이옥은 민요를 한시(漢詩)로 재창작한 작품집 「이언(俚諺)」의 서문에서 남녀의 정을 살피는 일이 세상의 모습을 관찰하는 좋은 수단이라고 하여 세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작성 방법>

- [A]와 [B]에서 발신자의 공통된 요구가 무엇인지 쓸 것.
- [A]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 갖는 의미를 서술할 것.
- <보기>를 참조하여 ㉡이 갖는 의미를 서술할 것.

발신자	전언	수신자	수신자의 행위
그녀	[A]	심생	㉠ 붓을 던지다
선생님	[B]	매화외사	㉡ 심생의 일을 적다

5. 다음은 이형태의 교체 조건에 대한 설명이다. <자료>에 대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설명하시오. [4점]

하나의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다른 이형태로 실현되는 현상을 교체라 한다. 교체는 대개 그 교체의 조건이 음운에 따른 것인가, 형태나 어휘에 따른 것인가에 의해 음운론적 조건에 의한 교체와 형태론적 조건에 의한 교체로 나뉜다.

현대 국어의 주격 조사 '이/가'는 이형태의 교체 조건이 선행 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인가 모음인가와 같은 음운적 특성이므로 ㉠ 음운론적 조건에 의한 교체를 보이는 예이다. 모음조화에 따른 교체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과 '-었-'의 교체 역시 음운론적 조건에 의한 교체이다.

이와 달리 특정 형태소나 단어가 조건이 되어 교체가 일어나는 경우를 ㉡ 형태론적 조건에 의한 교체라 한다. 중세 국어에서 관형격 조사 '의/의'는 '쇼, 長者, 獅子'와 같은 특정 명사 뒤에서 'ㅣ'로 실현되었는데 이 경우 'ㅣ'는 '의/의'와 관련하여 형태론적 조건에 의해 교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법 기술에서 형태론적 조건에 의한 교체를 보이는 형태나 어휘들은 목록화하여 제시하게 된다.

그러나 ㉢ 이 두 가지 조건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교체를 설정하는 견해도 있다. 의미적 속성이나 통사적 특성에 따라 교체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가령 현대 국어에서 주격 조사 '이/가'와 '께서', 여격을 나타내는 '에'와 '에게'를 이형태로 파악하기도 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들을 이형태로 파악할 수 없다고 보아 교체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 료>—

- (1) 王의 오나늘 <석보상절 24:40>
佛法을 즐기게 하야늘 <석보상절 21:41>
- (2) 머리 좃습고 <월인석보 10:13>
그 말 듣습고 <석보상절 6:2>
太子를 보습고 <석보상절 3:32>
- (3) 사르민 쁘디 <석보상절 9:19>
부텃 나히 <석보상절 13:1>
나랏 말쓰미 <훈민정음언해 1>
- (4) 普光佛이 니르시니이다 <월인천강지곡 상:3>
부테 니르샤디 <석보상절 6:11>
불휘 기픈 남근 <용비어천가 2장>

—<작성 방법>—

- <자료>의 (2)에서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나는 '-습/줍/습-'이 교체되는 환경을 (2)의 예만을 가지고 설명할 것.
- <자료>의 밑줄 친 부분에서 문법 형태들의 교체 조건이 ㉠, ㉡, ㉢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모두 분류할 것. 단, '㉠에 해당하는 것은~'의 형식으로 답하되 (1)~(4)의 번호로 답하고 분류 근거는 쓸 필요 없음.

6. 다음 <자료>에서 '비교'를 나타내는 문장에 쓰인 요소들의 특징을 파악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5점]

—<자 료>—

두 대상을 비교한 결과 그 속성이 유사한 경우	두 대상을 비교한 결과 그 속성이 차이가 나는 경우
㉠ 철수는 영수와 키가 비슷하다. ㉡ 철수는 영수만큼 키가 크다.	㉢ 철수는 영수와 키가 다르다. ㉣ 철수는 영수보다 키가 크다.

—<작성 방법>—

- ㉠, ㉢에서 두 대상의 속성의 유사함이나 차이를 드러내는 표현을 각각 찾아 쓰되, 그 품사를 언급할 것.
- ㉡, ㉣에서 두 대상의 속성의 유사함이나 차이를 드러내는 표현을 각각 찾아 쓰되, 그 품사를 언급할 것.
- <자료>에서 '만큼, 보다'와 '와'가 문장에서 비교의 의미를 드러내는 데 기여하는 정도의 차이를 서술할 것.

7. 다음은 대화 중심 문학 수업의 한 장면으로, (가)는 회적 대화 단계에서 이루어진 대화의 일부이며, (나)는 종적 대화 단계의 교사 발화이다. 교사의 지도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5점]

—<수업 자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 김춘수, 「꽃」

(가)

형도: 이 시는 내가 고등학교에 와서 읽은 시 중 제일 마음에 드는 시야. 나는 이름이 좀 어려운 편인 데다가 조용한 성격이어서 새 학년에 올라오면 내 이름을 기억해서 불러 주는 친구가 별로 없어. 가끔은 내 자신이 너무 존재감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속이 상했는데, 이 시를 읽고 나니까, 내가 먼저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나 말고도 우리들 모두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

지우: 나도 이 시가 마음에 들어. 그런데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게 무언지는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이 원래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시인이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로 고쳐서 발표했다고 선생님께서 알려 주셨잖아. 사실 이 시인은 누군가에게 의미가 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게 아닐까 싶어.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무언가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결국은 ‘꽃’이 되고 의미가 되는 건 부담스러우니까, ‘눈짓’ 정도로 가벼운 관계에 만족하는 건 아닐까. 나는 이 시가 적당히 가볍고 일회적인 관계를 노래하는 것 같아서 좋아.

수경: 너희들은 모두 이 시를 좋아하는구나. 나는 이 시가 썩 좋지는 않아. 내가 시 쓰기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이 시가 시인이 시 쓰기 과정에서 고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같이 느껴졌어. 시를 통해 세상에 존재하는 대상들의 이름을 불러 줌으로써 그것들의 참 의미가 드러난다는 것으로 읽혀. 그런데 나는 시를 쓰면서 대상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표현을 하려고 무척 애를 써도, 번번이 시를 완성하고 나면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 참 의미에서 점점 멀어지는 느낌 때문이야. 하지만 시인은 이름을 불러 주면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고 너무 확실하게 말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지 않아.

(나)

교사: 여러분 모두 시 작품을 적극적으로 감상했군요. 그런데 몇 명에게는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혹시 ㉠ 시어의 의미 관계는 충분히 살펴보았나요? 시어와 시어 사이의 수식 관계나 유의 관계 등에 주목해서 꼼꼼히 읽으면 시의 전체적 의미를 더 타당하게 읽어 낼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 보조 자료로 배부해 준, 같은 시인의 「꽃을 위한 서시」도 읽어 보았나요?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로 시작하지요.

—<작성 방법>—

- ㉠의 질문 의도를 고려하여 ‘지우’가 부적절하게 해석한 부분을 제시하고 타당한 해석과 근거를 서술할 것.
- ‘수경’의 반응과 관련하여 ㉡의 질문 의도를 서술할 것. 단, 교사가 제시한 보조 자료를 활용하여 그 근거를 밝힐 것.

8. (가)와 (나)를 활용하여 “작품 속 인물들의 삶과 생각을 이해하고 평가하면서 자신을 성찰한다.”라는 학습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학습 활동을 구안하고자 한다. <작성 방법>에 따라 한 편의 글로 논술하시오. [10점]

(가)

4·19가 나던 해 세밑
우리는 오후 다섯 시에 만나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불도 없이 차가운 방에 앉아
하얀 입김 뿜으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리라 믿었던 것이다
결론 없는 모임을 끝낸 밤
혜화동 로터리에서 대포를 마시며
사랑과 아르바이트와 병역 문제 때문에
우리는 때 묻지 않은 고민을 했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노래를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노래를
저마다 목청껏 불렀다
돈을 받지 않고 부르는 노래는
겨울밤 하늘로 올라가
별뿔별이 되어 떨어졌다
그로부터 18년 오랜만에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 되어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되어
넥타이를 매고 다시 모였다
회비를 만 원씩 걷고
처자식들의 안부를 나누고
월급이 얼마인가 서로 물었다
치솟는 물가를 걱정하며
즐겁게 세상을 개탄하고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추어
떠도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모두가 살기 위해 살고 있었다
아무도 이젠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적잖은 술과 비싼 안주를 남긴 채
우리는 달라진 전화번호를 적고 헤어졌다
몇이서는 포커를 하러 갔고
몇이서는 춤을 추러 갔고
몇이서는 허전하게 동승동 길을 걸었다
돌돌 말은 달력을 소중하게 옆에 끼고
오랜 방황 끝에 되돌아온 곳
우리의 옛사랑이 피 흘린 곳에
낯선 건물들 수상하게 들어섰고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아직도 남아 있는 몇 개의 마른 잎 흔들며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했다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바람의 속삭임 귓전으로 흘러며
우리는 짐짓 중년기의 건강을 이야기했고
또 한 발짝 깊숙이 늙으로 발을 옮겼다

- 김광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나)

[이전 줄거리] Y학교 교사인 ‘석’에게 6·25 발발 이후 소식을 몰랐던 친구 ‘조운’이 갑자기 나타난다. 개성이 뚜렷하고 자존심이 강한 작가였던 ‘조운’은 전쟁을 겪으며 성공한 사업가로 변신하여 ‘석’의 앞에 나타난 것이다. ‘석’은 ‘조운’으로부터 그동안 ‘조운’이 겪었던 일과 그를 따르던 작가 지망생 ‘미이’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부유한 집안의 딸로서 재기발랄했던 ‘미이’는 항상 검정 넥타이를 매고 다니던 ‘조운’에게 화려한 무늬의 넥타이를 선물한다. 전쟁 중에 헤어졌던 이들은 전쟁 후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조운’은 그동안 ‘미이’의 집안이 몰락한 사정을 알게 되고 그녀를 도와주려 한다.

나는 미이의 가족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했네. 그러나 미이와 자주 만나는 사이 처음의 순수했던 생각보다도 야심이 더 앞을 섰다는 것을 고백하네. 술과 계집이 마음대로였던 내 생활이라, 미이에 대해 밖으로 나타나는 태도도 좀 다르다고 미이 자신이 눈치 챘을 것일세.

나는 다방을 하나 차려 줄 것에 생각이 미치었네. 이것이면 내 힘으로 자금 유통이 되고, 미이의 명량성도 센스도 살릴 수 있고, 수입 면도 문제없다고 생각했네. 이 계획을 말했더니,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듣고, 얼굴에 희망의 불그레한 홍조까지 떠올리던 미이였으나, 다음 날 5일간의 생각할 여유를 달라는 것이었었네. 더 생각할 여지도 없는 일일 터인데 망설이는 것이 수상했었으나, 그러마 하고 나는 동아 극장 옆에 있는 마침 물려주겠다는 다방 하나를 넘겨 맡기로 이야기가 다 되었었네. 그 닷새 되는 날이 오늘이고, 정한 시각에 연락 장소인 다방엘 갔더니, 레지*가 내민 것이 종이 꾸러미였었네. 펴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네. 다른 길과 달라 간호 장교이고 보니, 생활 방편을 위한 것이 아님이 대뜸 짐작이 갔고, 더욱 나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 **검정 넥타이**였었네. 그러면 미이가 첫날 다방에서 ‘사명 운운’ 했던 것은 그 길을 말함이었던가? 나는 부끄럽기 짝이 없었네. 검정 넥타이를 들고 나는 비로소 3년 동안 내가 정신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을 뼈아프게 느끼었네. 미이가 말하는 그 사명을 찾는 길, 사명을 다하는 일을 나는 사변이라는 외적인 격동 때문에 포기하고 만 것일세. 가장 잘 생각하는 척하던 나는 가장 바보같이 생각했고, 부박하다고 세상을 모른다고 여기었던 미이는 사변에서 키워졌고 굳세어졌고, 올바른 사람이 된 것일세. 이렇게 생각하자 나는 천야만야한 낭떠러지를 굴러 떨어지는 듯했네. 구르면서 견어잡으려고 한 것이 친구의 구원이었네. 자네를 찾은 것은 이 때문일세…….

조운의 긴 이야기를 듣고 난 석은, 여기 올 때까지 그렇게

호기심을 끌었고 기대의 대상이 되었던 그에게는 이제 아무런 흥미도 가지지 않았다. 더욱이 그의 고민 같은 것은 문제도 아니었다.

석의 뇌와 마음은 강렬한 미이의 인상으로 꽉 차 있었다.

그리고 미이가 조운의 마음에 던져준 충격 이상의 충격을 석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안주가 좋아서만이 아니었다. 그 강렬한 배갈*도 석을 취하게 하지 못했다.

역시 마음이 미이로 말미암아 팽팽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운의 차로 집에 돌아와서도 석은 큰소리를 탕탕 치거나 울거나 하지 않았다. 얌전하게 자리에 들어가 가족들을 들볶지 않았다.

그의 엄숙한 태도에 가족들은 또 술을 먹었다고 잔소리를 할 수 없었다.

자리에 누워 그는 생각하였다.

‘조운의 말대로 조운은 사변의 압력으로 그의 사명을 포기했고, 사변을 통하여 미이는 용감하게 시대적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였다. 그러면 나는?’

눈을 감았다 뜨며 석은 중얼거렸다.

“사명을 포기치도 그것에 충실치도 못하고 말라가는 나는? 나도 사변이 빚어낸 한 타입이라고 할까?”

- 안수길, 『제3인간형』

* 레지: 다방 종업원.

* 배갈: 고량주. 중국술의 일종.

〈작성 방법〉

- (가)의 ‘넥타이’와 (나)의 ‘검정 넥타이’의 내포적 의미를 포함하여 (가)의 화자와 (나)의 ‘조운’이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할 것.
- (가)의 화자와 (나)의 ‘조운’의 삶의 태도를 평가하기 위한 학습 활동으로 독서 토의를 하려고 할 때, 설정할 수 있는 토의 주제 1가지를 의문문 형식으로 제시하고 그 이유를 밝힐 것.
- (가), (나)를 읽고 학습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 학습 활동을 1가지 제시하고 그 이유를 밝힐 것.
- 서론 1문단, 본론 3문단으로 구성하되, 결론은 생략할 것.

<수고하셨습니다.>